

新年隨想



무엇을 기다리는가

鄭 東 哲

여길가나 저길가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다 못해 절규하고 있다.

설법을 들으러 직접 불당에 들어서 본적은 없으나 등산길에 울려 퍼지는 목탁소리 속에 수많은 불자들의 합장염불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는 짐작이 갈 수 있다.

크고 적고간에 예배당 지하실의 텔레비전을 지켜보는 신도의 통성기

도가 또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예측되는바 없지 않다.

신부님의 강론을 듣지 못했지만 고해성사의 애절함이 무엇인지 그것도 알법하다.

주제님은 얘기지만 무엇인가 기다림의 절규라는 점엔 이의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무엇을 그들 인간은 기다리고 있는냐는 내용이 서로간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토정비결에 웃어보는 얼굴이나 사주팔자 점속에 가슴을 옥죄이는 마음이 매양 다를 것이 없으니 하여간 인간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음이 자명하다.

예외없이 이즈음이면 동물원의 어떤 학자가 텔레비전에 나와 그 해의 상징적 동물을 놓고 참으로 신비로운 논리의 유희로 인간의 가난한 마음들을 달래주는 것도 말하자면 무엇인가 통하는 맥락을 갖는다. 뿐인가 민속학의 구성진 옛이야기가 한 몫 끼고 보면 이제 더 강조할 것도 없이 새 해 새 아침에 「돼지」띠를 지껄지껄하게 되기에 이른다.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기에 인간들은 이렇게 말이 많아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남의 얘기로 즐길때는 아닌 듯 싶다. 난들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이 없을리가 없을테니 말이다.

—나는 「돼지」가 되고 싶다—

—나는 정말 「돼지」가 될 수 있다면 한이 없겠다—

이유는 내가 돼지띠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 ×

중국 고승의 한 이야기.

마조(馬祖)스님이 있었다.

이제나 저제나 하며 깨달을듯 미궁에 헤매이면서 좌선(座禪)하기

몇년째인지, 이렇다 할 말 한마디 변변히 없던 스승이 어느날 옆에 앉아 기왓장을 드르륵거리며 가는 지라 시끄럽기 또한 며칠이 지나 참다못한 마조가 한마디 조롱을 던졌다.

「기왓장을 갈아 무얼하시렵니까?」

「모르고 있었나? 기왓장을 갈면 금이 나오지.」

스승이 랍시고 그래도 무엇인가 기대를 했더니 고작 병신값으로 한다는 소리가 이꼴이라 어이가 없는 마조.

「한 달, 아니 평생을 갈면 거기서 금이 나올 턱이 있겠습니까?」

제발 그만두시지요.」

스승, 그때 갈던 손을 멈추었는지 아닌지 하여간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는데

「말(馬)이란 놈이 소같이 정성들여 평생 좌선을 하면 아마도 소(牛)가 된다하지.」

참으로 신기한 노릇이다. 기왓장이 아니라 다를까 금이 되었다. 마조스님이 정말 소같이 앉아 염불만 하지 않고 말(馬)되어 이 산 저 산으로 뛰어다니며 제자를 키우게 됐다는 것이다.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아리송하지만 될가 감이 잡히는 것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돼지 이

야기를 하나 해야겠다.

연세대학 옆들 정자에 무학대사와 이성계가 앉아 주고받은 얘기로 전해진 것.

「저 대사는 아무리 봐도 돼지같이 생겼구려.」

「예, 그러하옵겠습니다. 대왕께서는 영락없는 부처님이외다」

이성계, 대사의 말속에 찬사와 아첨이 엇갈린 듯 찻찻한 기분이라 그 까닭을 물으니,

「그야 그럴수 밖에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이유인즉슨 본시 돼지 눈에는 매사가 돼지같이 보이는 것이겠아옵고 부처 눈에는 모든 것이 부처같이 보이는 것이 이치이기 때문이겠습니다」

—나는 돼지가 되고 싶은 것이다—

이성계가 되고싶다는 그런 뜻에서 돼지가 되고싶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부처같은 부처가 될 턱이 없는 바에는 돼지같은 돼지가 되어 말(馬)같은 마조가 되었으면 하는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다.

× ×

나는 우리집이 가끔 도서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질 때가 있다. 현관을 들어서면서 바른 쪽으로 나란히 붙어있는 방에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열심히 책을 뒤지고 있고 왼쪽 방에 아들이란 놈이 또한 어수선하게 여기저기 흐트러

진 책속에 중얼거리고 있다. 조금 들어와, 역시 왼쪽 부엌방에 아내 또한 식탁에 불을 켜고 열심히 무엇인가 귀절을 외우고 있다. 그리고 쪽 들어와 안방엔 그야말로 난장판이긴 하지만 교자상 위에 고독한 책과 글썩지들이 너저분하게 날 기다리고 있으나 도무지 싫지가 않다. 누구하나 말없이 다섯식구가 그리 벌레같이 책들과 무엇인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서일까?

어느 한 날, 한 시간의 일이 아니라 하교한 날 그야말로 삼백육십오일이 매양같은 풍경이니 도무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집인가 도서관인가?—

물론 식구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기다리는 바가 없지는 않다. 대학생은 유학을 기다리며 고등학생은 대학을 가려고 기다린다. 국민학생인 꼬마는 덩달아 하여간 성적이 좋아야 한다고 기다림이 있다.

—아내와 나는 무엇을 기다리며 있는 것일까—

돼지와 토끼가 각각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호랑이, 용 그리고 개이렇게 다섯 식구가 결국은 각각 돼지, 토끼, 호랑이, 용, 개가 되려고 간절히 기다리며 절규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 둘 이루어지리라는 기다림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집엔 연말 연시가 특별히 없다. 어느 해가 무슨 동물인지 그것을 잘 모른다. 사실은 아무도 그 해의 상징동물에 자신의 운명을 투영하여 내일(來日)을 기다려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러는 삭막하기도 하다. 그저 돼지가, 토끼가, 호랑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점이다.

내가 돼지같은 돼지가 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듯 그들도 힘

겹기만 할 것이다. 지금으로써 기대되는 희망이란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할 뿐이다. 돼지가 되어, 토끼가 되어, 호랑이가 되어 세상을 돼지같이 또는 토끼같이, 호랑이같이 보아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동물같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같은 동물이, 말하자면 사람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정말 기다림의 끝이라고 믿고 도서관 같은 우리의 집이 있다는 것이 다행할 뿐이란 것이다.

제발 망령되어 간사스런 「동물같은 인간」이 되지 않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라면 그것은 과연 어떤 세상이 되는 것일까?

〈필자=정동철신경정신과의원장·의박〉

早期발견만이 당신을

癌으로부터 구해 줍니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7 면에서 계속〉

하였으나 스탈린도 70歲를 一期로 죽어갔다. 京城帝大 内科 岩井教授는 脾臟 에키스劑 注射로 結核을 治療해 보려고 企圖하여 보았으나 큰 成果를 얻지 못하였다. 結論的으로

不老長壽의 最善의 方法은 우리 健康管理協會가 目標하는 成人病의 早期發見, 早期治療가 最善의 方法임을 強調하는 바이다.

〈필자=健協인천직할시지부장·의박〉